

자동차 색상개발(Color development)과 재료(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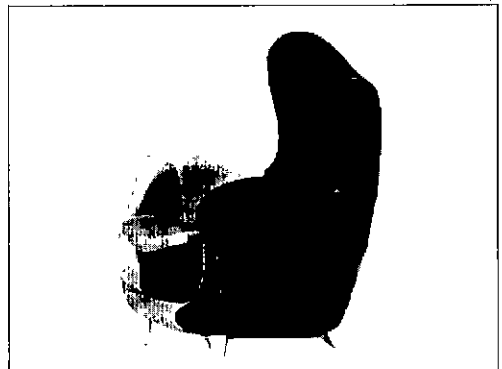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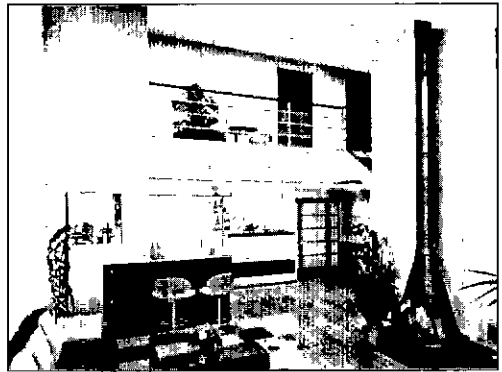
김 영 일 · 현대자동차 칼라팀

1. 序論

오늘날 칼라(color)는 누구나에 의해 언급 되어 지고 취급 되어지며 사용 되어진다. 칼라는 더 이상 소수의 어떤 전문가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의미(terminology)가 되었다.

요즘은 누구라도 의상(fashion)에 있어 codi(coordination)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style과 color로, 그리고 자기만의 identity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편화되었고 가구(furniture) 및 interior분야에서도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소품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칼라, 그리고 다양한 재질까지도 선택을 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실내공간의 lay-out, 그리고 스스로 coordinate한 공간을 선호하여 오늘날은 apartment 및 주택까지도 맞춤 선택(customize)된 사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구매 시 구매 동기유발 및 고객의 차종 선택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외관(styling)과 그 색상(body-color)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칼라라는 의미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칼라는 여전히 피상적으로(superficial) 이해 되어지고 있고 단편적으로만 사용(application)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칼라는 여전히 어두운 색상의 복잡한(complex) 주제이며 미공 속에 있는 연구대상의 푸른 빛 진주이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



도 직접적이며 단언적인 정의(definition)를 내릴 수 없는 잣빛 개념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이 칼라에 대한 인식(perception)과 선호도(preference), 그리고 느낌(feeling)등이 시대(time-period)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성장배경 및 생활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전혀 다르며 문화, 사회적 주위환경과 종교적 배경 그리고 지역별로 또한 기호도와 인식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점이 색상 개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주된 point며 어제(past)는 물론 앞으로도(future) 계속 분석,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자동차(Automotive vehicle)

2-1. 디자인(styling)과 색상(coloring)

자동차(vehicle & car)는 스스로 동력을 발생시켜 구동되는 구조를 가진 기계인데 주로 인간의 거리 이동을 위한 편리한 운송수단 및 화물수송의 도구로 사용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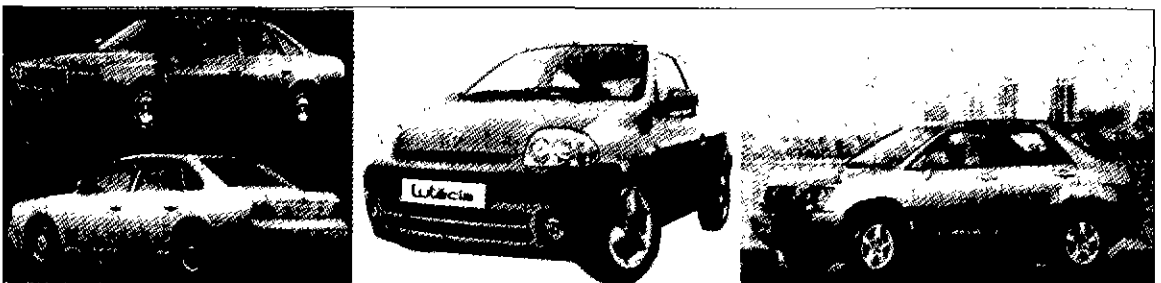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의 축적과 사회생활 pattern의 변화로 인해 시간 사용에 대한 개념이 work에서 leisure로 그 의미가 변하면서 자동차도 더 이상 primitive한 운송수단의 개념을 넘어서 소유자의 부(wealth)와 사회적위치(social status) 및 여가, 취미 활동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사용 양상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자동차의 다양한 사용가능성과 인식이 변화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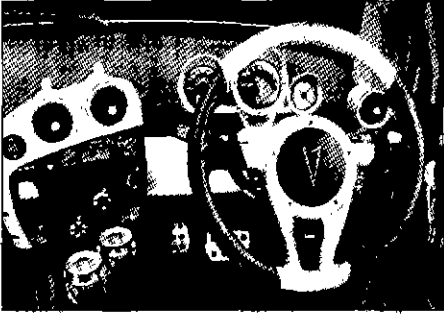


써 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다.

자동차는 외관(styling)의 비중이 점점 더 중요시 된다. 외관(styling)에 따른 고객의 선호도가 구매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며 좀 더 다양하며 독특하고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차별화된 design이 요구 되어지며, 자동차의 외관 또한 시대에 따라 그 형태(shape)가 그 시대의 취향과 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변화되어 왔고 지역별로 기호도와 선호의 형상의 차별이 있으며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차종의 image가 다르다.

자동차 외장(exterior)뿐만 아니고 내장(interior) 또한 자동차의 전체적 image를 결정 짓는 측면에서 오히려 외장보다 더욱 고객의 구매 결정을 확정 짓는 부분이며 특히 색상면에서 오히려 interior는 exterior대비 구성부위가 복잡하며 사용계질 및 여러 가지 표면효과가 극명하게 드러





나며 또한 운전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질 및 색상의 combination과 서로 다른 재질과 효과의 적합한 coordination을 통한 완벽한 마무리 처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2-2. 자동차 색상(Coloring)의 의미와 재료(Material)

자동차와 칼라(color). 참으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개념의 단어이다.

감성적인 품질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인 자동차 색상(color)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천차만별한 배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동차 색상은 단지 외장 칼라(color)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전체적 image, 즉 body & bumper, 그리고 다른 외장 부품(elements)들과의 색상, 표면효과, 재료(material) 그리고 interior에 있어서도 동일한

여건에서 이 모든 요소의 배열과 조화에서 오는 전체적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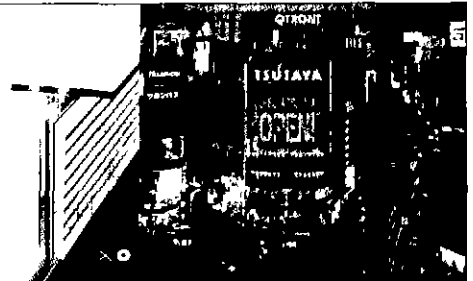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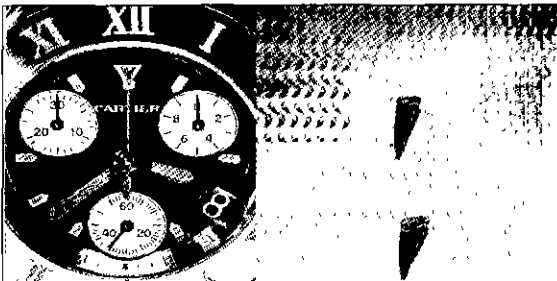
이중에서도 재료는 색상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재료는 오늘날 어디에도 있다. 아니, 우리는 다양한 재료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재료(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이다. 이 재료가 없으면 designer 및 기술자, 건축가 그리고 예술가 등 모든 사람들의 창조적인 활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언급된 모든 색상의 concept과 색상효과는 바로 이 재료가 존재,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얻어지는 재료의 혁신과 신재료의 개발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주어지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며 주어진 재료 특성 특성마다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또한 색다른 효과와 특성을 접목하여 최선의 coordination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그 색상을 돋보이게 하며, 또한 그 색상과 더불어 전체적인 design quality 및 감성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3. 색상(Color)과 재료(Material) Essay

다음은 자동차에 있어 칼라작업(coloring)이 이루어져 완성된 차량이 외장(exterior)과 내장(interior)에 색상과 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harmonized, combined)되고, 전체적으로 coordinated된 부분 부분들을 산문적으로 표현



한 내용으로 자동차 색상작업(coloring)과 그 무한한 범위 그리고 영역을 가늠할 수 있다.

막힘이 없는 미끈한 silhouette의 body-line, 강렬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색상과 가을하늘이 무색하리만치 투명하고 반짝이는 걸 표면의 광택, tinted된 유리가 차량의 형태를 부담 없이 이어주고 투명한 느낌이 오히려 깨끗한 가슴으로 다가온다. 차량의 앞, 뒤와 door에 장착 되어 있는 손잡이에 서늘한 느낌의 푸른빛의 깨끗한 chrome의 외장 부분들이 그 청량한 steel의 넓은 면을 지루함 없이 채워주며 accent의 point로써 조화를 이루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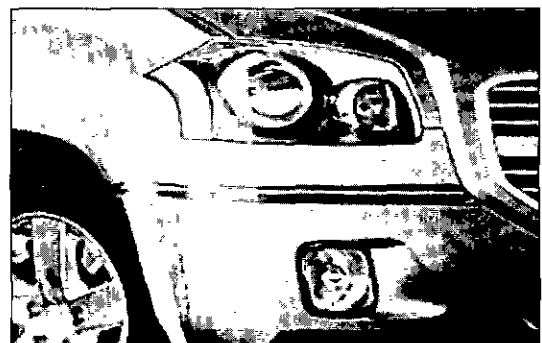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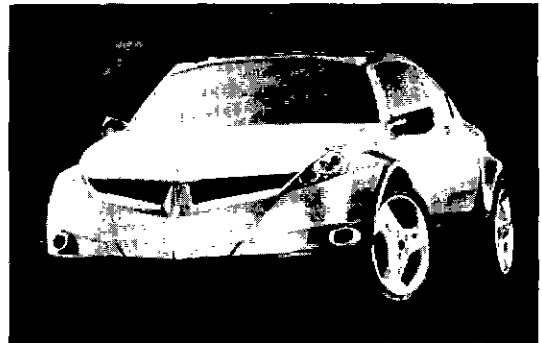
외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는 body면과 다름이 없으나 재질이 다른 plastic으로 앞, 뒤 bumper가 상이한 재질과 matt하면서도 rough한 표면효과로써 고 광택의 외장판넬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자연스러운 image를 연출 함으로써 원래 의도 됐던 styling의 느낌을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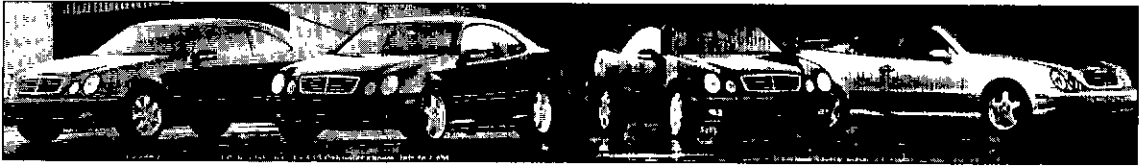
Head-lamp의 발전된 multi-reflection효과는 마치 emerald눈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끌림을 유혹하고, combi-lamp의 황색과 fog-lamp의 흰색이 또한 전혀 어색함이 없는 상태로 bumper 및 body와 조화를 이루고 rubber의 molding 또한 외장(exterior) 곳곳에서 전체적 분위기에 맞게 완벽한 어울림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terior에서 가장 극적으로 모든 것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의 발 부위에 해당되는 tire 및 wheel이다. 강력하면서도 육중한 느낌의 검은색 tire는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외장(exterior)의 모든 느낌을 완벽히 마무리 하는 part이며 이는 alloy-wheel의 shiny하며 고급스러운 design과 맞물려 엔진이 구동 되어 움직일 때 흐르는 듯한 현란한 미끄러짐으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어 기계 mechanism의 정수인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첫인상으로써 고객은 자동차의 exterior를 통

해 차량의 shape에 대한 전체적 image를 느낀 다음 만족한 마음으로 차체를 어루만지면서 반짝이는 chrome과 plastic으로 combination된 door handle을 손으로 만지며, 차갑지만 상쾌함을 느끼며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신선한 가죽과 인공적 재료인 plastic의 합성적인 새로움의 냄새가 신선함과 다양함의 공간으로의 초대를 확인하여 준다.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체적인 실내의 색상이다. 바깥에서 느꼈던 우아하며 중후한 감의 그 느낌, 그 image 그대로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내려앉은 듯한 느낌의 어둡지만 고급스러운 색상과 tone으로 치장을 하였고, 또한 변화를 주기위해 밝은 색으로 부분적인 배색을 함으로써 결코 어둡고 답답하지 않은 인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느낌은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seat의 형상과 가죽과 cloth fabric의 색상과 pattern. 그리고 sewing line의 matching과 어우러져 순간에 실내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다. 그 impression과 함께 운전석에 앉는 순간 seat의 재질이 주는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감미로운 편안함이 온몸을 감싼다.

형광으로 illumination된 ignition-hole에 key를 넣어 "탈각"하는 순간 기계적으로만 다가오던 물체가 웅장하면서도 터질 것 같은 생명력의 소리로 살아있음을 강력하면서도 조용하게 알려온다. 그의 증거로 계기판에 온갖 살아있다는, 그리하여 달리고 싶다는 몸짓의 표현으로 온갖 종류의 계기 침과 색으로 숫자와 상태를 나타내며 자기의 존재를 화려한 색깔의 불빛과 함께 알려온다. 동시에 그를 감싸고 있는 crash-pad의 수려한 자태의 형상과 그 외피를 감싸고 있는 잔잔한 주름의 pattern들이 embossing으로 연결되어 완벽함으로 그리고 눈과 손에 감각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자연스럽다.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기능들의 집합소인



center facia는 기능의 동작을 위한 여러 종류의 switch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 다양한 표면과 색상효과로 서로 어우러져 있으며, 바탕은 더욱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적 느낌의 wooden pattern으로 장식 되어져 인공적인 느낌을 상쇄하며 고급스럽고 독특한 효과를 나타낸다. 오른손으로 가죽과 chrome으로 감싸져 있는 둥글고 듬직한 형태의 hand brake와 gear

knob을 만족한 느낌으로 가득히 손에 쥐고 “턱” 하고 앞으로 밀면서 우측을 보니 자리에 앉으며 보지 못했던 문의 실내장식이 눈에 들어오는데 center facia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가죽과 fabric, 그리고 wood-grain의 pattern으로 실내 전체적으로 현대적 감각과 최신 경향에 맞춘 platinum효과의 combination으로 장식한 모양이 부담스럽지 않게 기분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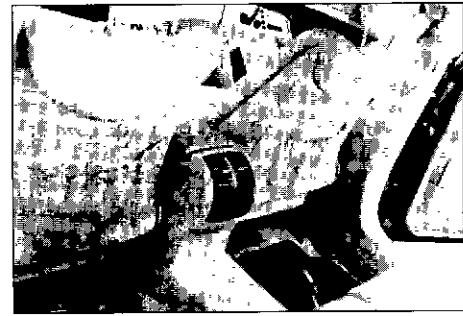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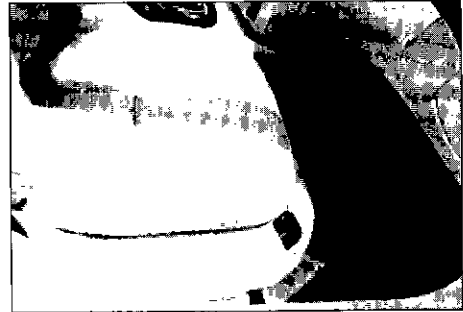
방향을 틀기 위해 steering wheel을 손에 잡고 돌리다 보니 손안 가득히 두터운, 그러나 부드러운 재료의 감촉이 묻어난다. 그 embo와 plastic과 가죽의 진실한 감촉이 상쾌함을 더한다. brake를 떼며 발을 바닥에 놓는 순간 폭신한 바닥 mat의 편안함이 발을 받쳐준다.

잠깐 눈길을 쫓아보니 그 색상과 pattern또한 밍지않게 전체적으로 조화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눈을 위로 들며 쳐다보니 그 밝은 하늘처럼 화사하게 다가오는 기둥(pillar)과 천장(head lining)의 밝은 재질이 주는 가벼움이 온몸 위에 깃털처럼 내려앉는다.

Inside-mirror로 보이는 뒷자리의 모습 또한 지금까지 느낀 실내의 image와 완벽하게 조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역시 interior는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특성 및 효과를 이용한 combination과 전체적인 조화로움(coordination)이 중요한 것 같다.

3. 결론

Designer가 이렇게 심사숙고 하여 design 하고 구성한 exterior와 interior를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동으로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선호도(trend)의 파악과 그의 반영, 그리고 연령과 성별, 지역적으로 선택폭의 차이가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공통 분모적인 사항들을 찾아내어 이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가능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느낌과 기분을 designer가 먼저 주어진 여건하에서 다양한 재료, 색상들의 실험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표면 및 장식효과 등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현실화하여 고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선도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designer의 창의적인 역량과 진보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